

# ARTICLE FOR KOREAN DENTAL JOURNAL

Col. William D. Love



Having been in Korea for six months. I have been asked to comment on Korean dentistry. Six months is hardly enough time to arrive at sound conclusions, but I will express my preliminary views. Of course, as Dental Advisor to the ROK Army my association has been mostly with military dentists. However, I have had several opportunities to visit the Dental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lso to visit a few civilian dental offices. I have been most impressed with what I have seen. I feel the school particularly provides an excellent base upon which Korean dentistry can grow.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should also be proud of the many dentists who are in the military. Although working under a constant hardship of poor facilities and lack of adequate equipment, they are continually moving forward and gaining considerable respect from the rest of the Korean Army and the military advisory group. I feel the young dental officers, recent graduates of the Seoul University Dental School, exhibit a good basic knowledge and are well trained to embark on a dental career. The problem for them and for all Korean dentistry is the more advanced training required in the various dental specialties. The United States is providing some training but at present it is meager compared to the needs of the profession and only exists for the military. There is most certainly a need for more post graduate education and the Korean profession must find within its own ranks those with the enthusiasm and capability to conduct it. I feel a method of accomplishing this would be specialty boards which would provide an incentive and recognize the efforts of those who are willing to devote the time necessary to attain such an achievement. In my observation, it was only after such boards were set up in the United States that post graduate education in dentistry showed real progress.

Another lack I have noticed is not in the dental profession itself but rather the lack of knowledge of dental health and its benefits exhibited by the Korean public. Some form of vigorous educational program is necessary to impress on the public the importance of good dental health, its effect on whole body health, and how easily a dentist can correct these problems. Such education would also enhance dentistry as a profession and allow it to assume its proper place in Korean society. Only dentists themselves can provide such a program.

The only way to accomplish the goals I have listed is through organization. I cannot urge too strongly the need for dentists to join together. It is only in this way that sufficient strength and funds can be attained to do the job. The organization exists--the Korean Dental Association--and the great majority of Korean dentists belong and pay dues which is commendable. However, having an organization is not enough, nor is just belonging. A sufficient number of members must be willing to give their time and efforts to carry out association duties. The apparent apathy of Korean dentists to do this, I feel, is the greatest deterrent to dental progress in this country. It was only through the untiring efforts of many anonymous dentists in the United States carrying out their portion of American Dental Association tasks that permitted that organization to achieve its mission of raising dental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Thus if asked to advise civilian dentistry in Korea I would say, "Give a little of yourself to the profession that has given so much to you. Attend meetings and do your part for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With every member doing his part, the goals of the profession can be achieved and Korean dentistry can soon take its place proudly in the world society of the rapidly growing profession of dentistry.

## 대한치과 의사협회 회지 발간에 불임

윌리엄. 이. 라브 中領

귀국에 6개월간 머무르고 있는 동안 본인은 귀국의 치과계에 대한 소감 피력을 요청받았습니다.

6개월이란, 확고한 결론을 말씀드리기에는 충분치 못한 시간이오나, 본인의 초기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귀 유권치과전문관이기 때문에 굳이 치과에 대부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도 몇번 방문했으며 몇 민간치과외원에도 돌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본것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상깊은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귀국치과가 잘 성장할수 있는 훌륭한 기반을 갖고있다고 느꼈습니다. 귀협회도 역시 많은 치과 의사가 군대에 복무중임을 자랑으로 여겨야 할것입니다. 빈약한 시설이나 불충분한 기재밖에없는 곤경하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있으며 군대밖에서 또 군사고문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최근에 졸업한 젊은 치과 의사들은 훌륭한 기초지식을 보여주고있으며 치과 직업을 시작할수 있게끔 잘 훈련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들이나 전 한국치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다던 억터 치과전문 분야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훈련의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미국의사는 약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업자체의 필요성에 비드라면 빈약한 것이며 그것도 군대에 대해서뿐입니다. 보다 더 많은 보수교육이 확실히 필요하며 또 귀국의 치과도, 그 직업 을 이끌수있는 열의와 가능성들 그 직업자체의 수준에서 발전하여야 될것입니다. 본인은 이것을 완수하는 한 방법은 전문의제도(Specialty Boards)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의제도는 자극적인 한 유인(誘因)을 제공할것이며 상기의 목적달성에 필요했던 시간을 자발적으로 제공한분들의 노력을 인식할수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관찰로는, 치과에있어서 보수교육이 전향한 발전을 보여줄것은, 미국에서 이러한 Boards가 창설된 이후였습니다.

본인이 느낀 다른 하나의 부족점은 치과라는 직업 자체라기 보다는 미국의 일반라중이 보여준 구강보건과 그 유익성에 대한 지식의 결핍입니다. 이면대중에 대해서 구강보건의 중요성과 전신적건강에 미치는 구강보건의 영향과, 또 치과 의사가 어떻게 쉽게 이런 문제들을 시정할수 있도록 감명시켜주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정력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은 치과를 한 직업으로서 촉진발전시키며 귀국사회에 치과를 올바른 위치에 자리잡게도 해줄것입니다. 치과 의사들 자신만이 이런 교육안을 마련할수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적한 유일의 목적달성방법이란 조직을 통하자는 것입니다. 치과의사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력하게 서트 뭉치라고 본인이 강요는 못합니다. 상기의 일들을 하기 위한 충분한 힘과 자금을 얻는것은 어떤 방법의단 있다는것입니다. 그 조직 즉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미 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그 회원이며, 또 의무적인 회비도 냅니다. 그러나 조직을 갖는다는것만으로는 충분치않습니다. 또 회원으로 된다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충분한 수의 회원은 자진해서 협회의 사업-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느낀바로는, 이런일을 성취하는데 귀국치과의사들의 분명한 남담(冷淡)-무신경-이 이나라의 치과 발전에 가장큰 제지력(制止力)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치과의사협회의 사업에 대해서 응분의 몫을 다해온 무수한 무명의 치과의사들의 피로를 모르는 노력을 통해서야 이룩되었던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치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명을 성취하게끔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본인에게 귀국민간치과계에 충언을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것입니다. <당신에게 많은것을 주고있는 직업-치과에 대해서 당신자신을 조금만 제공해주시오.....회합에 출석하시오, 그리고함으로써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하여 당신의 몫을 다 하십시오>

각자각자의 몫을 자회원과 함께 다 함으로써 그 직업의 궁극목표에 도달할수 있으며 또 귀국치과계도 급진하는 치과직업의 세계적무대에서 자랑스럽게 그 자리를 굳·잡을수 있을것입니다.

<筆者紹介> Col. William D. Love

1926. 11. Nebraska州에서 誕生(當年43歲) Hawai 大學 齒醫學科2年修了後 Kentucky州 university, Louisville 齒科大學卒業.

1943年 美陸軍中尉任官, 1954年 中領으로進級, 齒科首席顧問官으로 1962年9月來韓, 1964年9月까지 服役豫定. 來韓直前까지 New York市 Fort, Jay의 Dental surgeon으로 4年間 服務, 그동안 「맥아더」將軍의 主治 醫師로부터 信任이두터웠다는것이며 自己歷에는 「맥」將軍이 손수 署名한 크라란 同將軍 寫眞이 걸려있다.

自己 父親도 齒科醫師로(1950-1954) 4年間 美陸軍 齒科團長을 지낸과 있는 71歲의 退役少將, 膝下の3男 妹中 長男도 앞으로 齒科醫師가 되리라고 한다.